

# 축 사

(제10회 신지면민의 날)

2022. 9. 24.(토) 00:00 / 장 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지면민 여러분!

그리고, 타향객지에서 신지출신이라는 자긍심으로 애향정신을 실천하고 제신 출향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어가는 가을날, 열 번째로 개최하는 신지면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축제를 축하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3년여 동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면민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드리고 강건하게 이겨내 오신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에서 이웃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정신 실천의 공적을 인정받아 면민의 상을 비롯해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는 그간의 공적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지면민 여러분!

국내에 수많은 농어촌 지역이 인구와 일자리가 줄면서 갈수록 쇠퇴하고 있으며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지면은 청정바다와 풍부한 해양치유자원을 기반으로 바다산업 발전과 해양치유산업 중심지로 변화하면서 청년들에게는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 해양바이오산업의 각종 기

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건강과 관광이 어우러진 국내 최고의 웰니스관광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신지면은 꿈을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넉넉한 희망의 터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관망하며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이 살기좋은 신지면 공동체 일원이 되도록 기득권과 여유 있는 터전을 조금씩 양보하는 아량과 미덕을 베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청년이 돌아오는 신지면을 실현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신 평소 존경하는 신우철 군수님께 면민의 의지가 결집된 오랜 숙원사업 한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지면에는 청년들을 비롯한 면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문화 욕구를 충족할만한 실내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해양치유를 즐기기 위해 신지면을 찾아올 방문객들을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실내스포츠, 여가, 예술작품전시, 공연행사를 개최할 다목적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신지면민들은 군수님의 굳정 역점시책이며 신지면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적극 성원하고 있으며,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 할 기반시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면민여러분!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 '신지면문화체육센터'가 내년에는 반드시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신지면민의 소망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며 뜻깊

은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하신 임태인 추진위원장님, 김성수 신  
지면장님과 공직자, 여성단체, 청년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신지면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기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